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8.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더불어 사는 지혜
처음 마음으로	10	49재의 의미와 공덕
길상사 시간여행	14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화주 법정스님 ㉓
낮은 음계로	18	보리암에서 만난 부처
세계 일주 시작이 반	22	대한제국 공사관
아름다운 마무리	26	5월 결연 대상자 - 김광현(가명)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8	대화와 잔소리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1	조여름, 그 자체가 풍성한 밥상
모단 에ッセ이	34	살구꽃
시심정심	38	여승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9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강명주 「오늘처럼 즐거운 날」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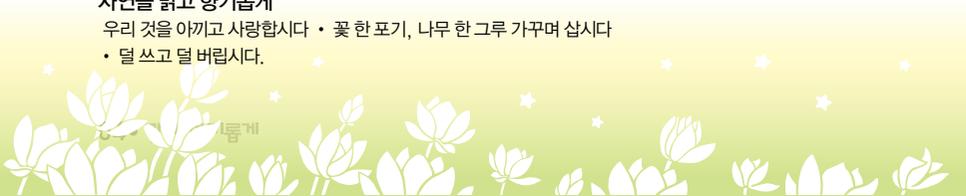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79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연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정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더불어 사는 지혜

글·법 정(法 頂)

-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년간 주석하던 송광사 불일암에서 강원도 화전민촌에 들어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으셨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훌쩍 길을 떠나 전화도 전기도 없는 두메산골로 옮긴 것이 지난해 4월 19일이었습니다. 화전민이 살다가 비운 곳인데 「사람멀미」라고나 할까, 혼자 있고 싶어 떠났습니다. 원래 이기적 인간이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남하고 있으면 「전체적 나는 존재하기 힘들어 공간을 바꿨습니다.

— 그곳에서 법정 스님은 혼자 빨감을 마련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고 했

다. 가만히 앉아 참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24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이 스님의 지론. 밥을 먹는 사람이면 밥할 줄 알아야 하고 빨래는 맘에 낀 때도 함께 세탁하는 것인 만큼 그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게으르면 안 되고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홀로 있을 때 투철한 자기 질서가 없으면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다고 덧붙였다.

- 75년 서울에서 불일암으로 내려간뒤 「무소유를 저술했고 이년에 화전민촌으로 옮긴 후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를 펴내셨더군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무소유의 생활철학을 실천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노릇」은 자기개조가 없으면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입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나는 소유를 정리하고 거처를 옮깁니다. 물론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야 책 정도지만... 한곳에 오래 있으면 편리한 대신 번거로운 인연이 생겨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덕이 되는 것이지요. 불일암은 전기라도 들어왔는데 현재 있는 곳은 전기가 없어 처음 산골 오두막에 들어왔을 때는 어찌나 불편한지 내가 얼마나 편한 생활에 길들여졌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편리한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말만 그렇지 현재 무소유 속에 사는 것도 아니지요. 물질뿐 아니라 관념과 비본질적인 것에서도 벗어나 본질적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책도 그렇더군요. 나는 쓰는 것보다 읽는 기쁨이 더 큰데, 그러

나 책이 전하는 메시지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 「불교적이라는 관념에서조차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서 법정 스님은 「내 식대로 산다는 것이 자신의 화두라고 웃으며 말했다.

- 이제까지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 대해 말씀 들어본 이유는 요즘 같은 세상에 「청빈만큼이나 가장 절박한 명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정계관계 재계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세대 넘게 함께 거처 온 체제에 대해 허탈과 배신감마저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잔뜩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가진 자의 끝없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거나 아이가 아픈데 입원비가 없다는 생존 때문에 생긴 부정이라면 도덕적으로 나무랄 수만은 없지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착한 마음을 독해하는 세 가지 번뇌를 「삼독」이라 해서 항상 경계하도록 가르칩니다. 남을 미워하는 증오심(진), 한 치 앞도 못 내다 보는 어리석음(치)과 함께 탐욕(탐)은 우리가 갈등하고 세상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중생이 갖고 있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릴 것은 가려야 하는데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른이 없어지면서 오늘날 부끄러운 치부가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 스님은 「제 몸이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라는 법구경의 한 대목과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비유를 예로 들면서 그런 교훈이 몸에 밸 수만 있다면 세상은 덜 오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개혁을 내세운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방 후 모든 정권이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문민정부는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지난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뽑지 않은 사람들도 그분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늘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나는 정치란 농사짓는 일과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는데 최근의 사정 정국은 바로 그 잡초를 뽑는 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잡초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잡초도 일시에 다 뽑아버리면 곡식이 허약해지고 제초제를 쓸 경우에는 토양 속의 미생물도 함께 희생되고 맙니다. 농사의 본령은 곡식을 가꾸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병행해서 선량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정

책이 필요하지요. 농사짓는 사람은 잡초 뽑기보다 흙에 밑거름 주고 곡식을 기르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 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송광사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김대통령이 발표한 「광주 해법」, 다시 말해 명예회복은 이뤄져야 하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역사에 미루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그 전날 광주 시민 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송광사로 돌아갔지요. 광주항쟁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용서는 해야 하지만 최소한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서하자」는데 대상이 누구지는 알아야 용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복은 없어야 하지만 진상은 규명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광주의 희생자들이 너그러운 아량을 베푸는 것이 순서지요.

● 의식개혁과 관련해 성직자와 신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최근 조찬 기도회에 참석, 개혁에 있어서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공감이 가더군요. 지난해 후기대 입시의 시험지도나 100번에 입시 정답 유출은 교회와 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공모해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한두 신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었지만 그 근저에는 축복과 기쁨이 강조되는 일부 종교계의 풍토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 성직자나 신자들 때문에 흐린 인상을 주고 있지만 사실 신자들 사이에서는 바른 법을 찾겠다는 열의가 높아가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에는 자기 정화와 사회 정화의 책임이 본원적으로 부여돼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종교단체 정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한편 신자들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것은 신앙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점에서 교회와 절에 책임이 있

습니다. 설교나 설법이 굉장히 관념적이라 실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종정 스님의 법어를 보면 「더불어 재미있게 사는 세상 즉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원래 사회란 인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상의 상관」이란 바로 인간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실타래에 의해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나와 하나로 이어져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들었다고 할 때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병든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개인이란 사회라는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이기 때문이죠.

● 세상을 더불어 사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91년 5월 불탄일을 앞두고 역시 「동아 인터뷰」에서 「사랑의 실천과 이웃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게 기억됩니다만...

몇 년 전 인도를 여행할 때 민중들의 삶을 보며 종교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근원적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만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해답이 나오더군요. 그곳 불교는 인간적이어서 조그만 절에서 정부에서도 못하는 큰 사회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란 곧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이자 같이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 스님은 초파일에 켜는 연등도 진짜 등불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켜는, 다시 말해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을 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요즘 절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에 빛을 비추는 데 관심을 쏟는 등 반가운 변화가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 부처님 오신 날이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한마디만 꼭으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경전은 직접 번역한 「숫타니파타」, 「법구경」, 「선가귀감」 등인데 어떤 것을 펼쳐도 향기가 오래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건 아니건 아무장이나 펴놓고 읽어 보면 음미할만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 자신에게 엄격하고 솔직하면서도 진정으로 삶과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적인 법정 스님의 이미지다. 출가를 위해 처음 집을 나설 때 결심한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과 그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찾는 「자기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변함없이 몸으로 들려주는 영혼의 설법으로 보인다.

이 글은 1993년 5월 24일, 동아일보 임연철 문화부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 일시 : 2018년 5월 5일(어린이날)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생(저학년/고학년)
- 참가부문 : 운문·산문
- 수상자 발표 : 2018년 5월 셋째주 (사람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시상식 : 2018년 5월 27일 (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49재의 의미와 공덕

글 • 덕 일(德 日)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제가 요즘 심한 독감과 편도염으로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 엮불하는 걸 좋아하는데 목이 아픈 탓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니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거듭 큰 행사를 치르며 무리하다 보니 피로가 쌓였나 봅니다. 몸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경쾌한 목소리를 들려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참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법정 큰스님 8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큰스님을 그리워하고, 향훈이라도 느끼며 영상 법문 속에서나마 큰스님을 뵈고자 많은 분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큰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감

로의 법문은 세월이 지나도 우리 영혼의 메아리가 되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길상사 사부대중 모두가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청정한 마음 자세를 갖추며 신행 활동에 열심히 임하면서 큰스님의 높으신 유지를 잘 받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연로한 어르신들께서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49재에 관한 전화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스님! 꼭 49재를 지내야 합니까? 7*7재는 좀 버거운데, 1·3·5·7재나 초재와 막재만 올려드리면 안 될지요!” 대충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질

문 또한 진실하지 않고, 고인을 위하여 49재를 올려드리는 것이 귀찮은 듯 상담을 해올 때면 이 세상에 효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송강 정철, 박인로,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시대 4대 문장가로 꼽히는 “신흙”의 시가 생각납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항상 그 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을 चु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으며,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래 모습을 잃지 않고

버드나무는 백번을 꺾여도 새 가지를 낸다.”

이 시는 퇴계 이황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을 만큼 조선 후기 사림에

서 유명한 시입니다. 가난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청빈 속에서 살아가며 기개와 의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올곧은 선비의 지조에 관한 시인데, 저는 이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백골난망, 평생 잊거나 저버리지 말자는 뜻으로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 배푸신 크신 사랑이 그치실 때가 없습니다. 하늘같이 높고 크며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이고, 돌아가셨을 때 마땅히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하게 발원하는 것 또한 자식들의 몫인데 49재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온갖 이유와 사정을 들어 지나치거나 회피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장본원경 제7품 이익존망품(利益存亡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존망품(利益存

亡品)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함께 이익 되게 하는 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천도하여주면 망자나 천도해주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십구재(四十九齋)란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49일 동안 개최하는 천도의식입니다. 이 49재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매 7일째마다 7회에 걸쳐 지내기 때문에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합니다. 총괄적으로 이를 정리하자면 49재는 7일마다 일곱 번의 재를 지내줌으로써 영가의 공덕을 쌓아주고 부처님의 법문으로 지혜를 밝혀 극락왕생을 발원해주는 천도법입니다. 그러므로 유가족이 49재를 지낼 때는 이러한 뜻을 잘 새겨 재를 모셔주어야 합니다. 곧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망인을 잘 천도시

킬 수가 있는가! 반드시 유가족의 정성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유가족의 정성이 천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나 혼자 가 아닙니다. 49재를 지내는 동안은 망인과 내가 같이 있음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효(孝)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부모를 버리고, 공적으로는 사회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 수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교의 이상이고, 윤리적 행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전들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효순 공덕을 강조하셨고, 또한 “효(孝)는 선(善)의 극치이며, 불효는 악(惡)의 극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본다면 부처님이 부왕과 이모, 부인, 자식 및 국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서 수도했다는 것만을 보아서 엄세적이고 비

인간적인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위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윤리를 건설하고자 함이요, 결코 인륜을 파괴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속을 떠났던 6년의 세월 뒤에 세상에 돌아와 45년 동안 베풀었던 부처님의 교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비를 바탕으로 피와 살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효는 생명의 근원에서 이루어져 나오는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효는 모든 덕의 근본

으로 여러 종교가 모두 효를 근본으로 삼아 존중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특히 더욱 효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옛날 우리의 선조님들처럼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동안 지극 정성 무덤을 돌보며, 상식을 올려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낱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만큼은 정성스러운 효심으로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효심이 그리운 것은 봄날 푸르름으로 돌아오는 새싹들이 효심을 닦아서가 아닐까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 ③

글 • 홍정근

1994년 초부터 '맑고 향기롭게' 창립준비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청학 스님이 중심이 되어 전국에서 십수 명의 어른들이 뜻을 함께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은 문화방송 '오발탄'과 '신문고' 그리고 불교방송 '고승열전'의 윤청광 작가가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는 9가지 실천지침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던 중 종로 법련사가 확장공사를 하게 되자, 방을 비워주고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월드 오피스텔 9층의 허름한 사무실로 이사하게 된다.

그해, 3월 26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선포 기념행사로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법정 스님과 함께

하는 실천 큰 모임, 출발 맑고 향기롭게' 대중 법문을 개최하게 된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범종교, 범종파 순수 시민운동으로 회원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후원하는데 힘입어 부산, 대구, 경남, 전주, 춘천, 거제, 제주, 광주, 대전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마련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작지만 큰 울림을 주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주기 시작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조용히 정착되면서, 1987년 이후 김영한 여사의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기증

하겠다고 뜻을 거절해오던 스님은 주변의 간청을 수락하고,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도량으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1995년 6월 13일 그 터와 일체 건물을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분원 '대법사로' 등록하게 된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회원이 늘어나고,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모임의 공신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1996년 12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법정 스님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스님은 부득이 '이사장'이라는 세속 직위는 서류상의 직책일 뿐이라며, 이사장 대신 '회주(會主)'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였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운운하면 관(官) 주도의 의도적인 생색내기인 것 같아 '운동을 떼어내고, '지부'를 '모임'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고, '봉사를' '활동'으로, '베짱이'를 '나눔'이라며 회원들에게 국어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1997년 1월, '대법사'를 '길상사(吉祥寺)'로 이름을 바꾸어 길상사 창건 준비인 모임을 구성하고, 초대 주지로 청학 스님이 취임하였다.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십 년간 한식당으로 운영되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한 100일 기도와 더불어, 도량 정비 불사에 박차를 가하여,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개원하게 된다. 이날 창건 법회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월주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관웅 스님(직지사 조실), 장익 가톨릭 주교, 박청수 원불교 교무 등 종교계 원로 지도자가 참석하여 길상사의 창건을 축하해주었다.

법정 스님은 이듬해 2월 명동성당 축성 100돌 기념식에 초청되어 '나라와 겨레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1,800명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강연함으로써 한국 사회 종교 화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글 쓰는 것 외에 대중 법문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길상사 창건에 대한 책임과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격월로 대중 법문을 해주었다.

2003년 3월과 10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창립 10돌 기념으로 서울 길상사와 광주 남도 예술회관, 창원 KBS홀, 부산 롯데호텔, 경북대학교 대강당, 파리 길상사 6곳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고,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일구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해주셨다. 그해 12월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내 그림자에게" 라는 글을 통하여 길상사 회주(會主)와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직책을 사임하신다는 뜻을 밝히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뒤에서도 도울 것이라 약속하며, 길상사에서 작수 달마다 해오던 법회를 봄, 가을 두 차례만 할 뜻을 밝힌다. 그러나 주위 분들의 거듭된 만류로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직 사임은 철회하게 된다.

이때쯤부터 '회주 스님' '큰 스님' '이 사장 스님'이란 명칭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고 '어른 스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봄, 가을 법문만 하시겠다고 하였지만, 동안거, 하안거 해제, 결제, 길상사 창건 기념일, 부처님 오신 날 등 길상사의 큰 행사에는 산에서 내려와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였고, 지혜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에게 통찰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가을 정기 법회를 끝으로 스님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님은 "이 병고도 나를 찾아온 친지 중 하나이니 어르고 달래며 지내겠다"며 치료를 거부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자고 매달리는 제자들의 간곡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스님은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치료하시고, 2008년 2월 귀국하여 다시 글을 쓰고 대중 법문을 할 정도로 회복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4월, 병이 재발하였다. 스

님은 불편한 가운데에도 그해 봄 정기 대중 법문(4월)과 부처님 오신 날 법문(5월)에서 '자귀의 법귀의가 불교의 참 면목임을 대중에게 설법하며' 수행자로서, 재가 신도로서 우주 질서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폐암이 깊어진 뒤에도 스님은 침상에서 예불을 거르지 않으며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씀으로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으며,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스님은 2010년 3월 11일(음력 1월 26일) 오후 1시 51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행지실(行持室)에서 세수 78세,

법랍 55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오색 만장도 없고, 연꽃 상여도 없이, 가사 한 장에 덮여 길상사 행지실에서부터 극락전과 일주문으로 그리고 송광사의 가파른 숲속 끝 다비장으로 떠나는 길은 결코 초라하거나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객들의 나무아미타불 염불 소리와 추모하는 마음이 모여 수많은 만장이 되었고, 꽃상여가 되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며 불교(지혜와 자비의 종교)를 가장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맑고(지혜) 향기롭게(자비)로 표현하셨던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이 길상사가 존속하는 한 인연 있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당부하셨던 법정 스님은 마지막까지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한 스승으로, 이 시대의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되어 우리 영혼을 맑히고 있다.

보리암에서 만난 부처

글 • 전 민(작가)

오래전부터 남해의 보리암에 가고 싶었다. 인상 깊은 곳이니 꼭 한번 가라던 친구의 권유도 있었지만,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글의 여운이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더 키웠기 때문이었다.

이태 전 하던 일을 접고 훌가분해져 있을 때 이제는 가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함께 떠나기로 한 식구들의 의견이 여수 향일암 쪽으로 기울어서였다. 그때 노란 봄기운이 무르익은 마을을 지나 깎아지른 절벽 위에 다다르니 놀라운 비경이 펼쳐졌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있다 내려오면서 언뜻 보리암 생각이 나서 나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

게 물었다.

“보리암은 여기서 얼마나 가야 하나요?”

“저어기, 가물가물 보이는 데가 금산인데 눈에 들어오긴 해도 한참이 지라. 계는 정상도 땅이랑께.”

하지만 일정이 허락하지 않아 내 보리암 타령은 여기서 접을 수밖에 없었다. 눈에 잡히긴 해도 쉬이 갈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처럼, 여행은 가슴에 품는다고 해서 쉽게 떠나지는 게 아니었다. 또 얼마가 지나갔다. 그리움은 깊어 갔다. 그러던 것이 올 여름 들어서야 겨우 빗속을 달려 연정을 품은 그곳에 갈 수 있었다.

차는 숲 속 어딘가에 낮익은 고향의 얼굴들이 나타날 것 같은 길을 돌

고 돌아 텅 빈 주차장에 우리를 내려 놓았다. 거기서 다시 작은 차로 안개 낀 산길을 굽어 올라갔다. 영금영금 기어가던 차가 산마루에 일행을 떨어뜨려 놓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산길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자옥한 안개를 헤치며 깊은 바다로 빨려 들 듯 계단을 더듬어 내려갔다. 그때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슴푸레하게 암자가 보였다. 우웅~~ 범종소리는 산을 흔들고, 해무에 덮인 바다를 흔들고, 마침내 내 마음도 흔들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묻은 때가 씻겨나가는 듯했다.

보리암, 얼마나 버려던 참에 마주한 산사인가.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

에 찾아온 이방인에게 절은 쉽게 본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신비를 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것일까, 해수 관음상도 그저 방긋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내 몸은 비에 젖고 안개에 젖고 그 요에 젖었다. 비록 거기서 이승에서 의 삶을 접는다 해도 그리 억울할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은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날만큼은 나는 신심이 깊은 불자가 되고 싶었다. 크지 않은 불상을 모신 작은 법당은 나같이 어설픈 중생도 언제든 마음 열고 다가오면 다 받아줄 것처럼 안온했다. 나는 부처님께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을 바쳤다. 아직 더 가야 하는 내 삶의 안뜰, 사랑하는 능력이 모자라니 자비의 힘으로 채워 주십사 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이끌어 줄 한줄기 빛을 달라고, 그래서 남은 날을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옆

드려 있었을까. 땀인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불성 깊은 신자들이 진지한 몸가짐으로 예불을 드리는 것을 마저 보지 못하고 살며시 법당을 빠져나왔다. 그새 어둠이 내려와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어릴 적 산골 부엌에서 태우던 젓은 솔가지 연기처럼 자욱했다. 그리고 정적. 시간은 갈 길을 재촉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발길은 불당 뒤쪽을 향했다. 거기 두꺼비 한 마리가 어정어정 도량석 밑을 기고 있었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는데 저 놈과 나는 또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예서 이렇게 만나는 것일까. 얼마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놈의 굼뜬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놈은 통 움직일 기색이 없이 눈만 멀뚱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산속에 깊숙이 자리한 통나무집이전만 잠이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온 것 같은 아쉬움. 마음 비우겠다고 떠나와서 다시 뭔가를 채우려는 욕심이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다시 보리암으로 향했다. 미명의 아침 안개가 산봉우리를 휘감았다. 어쩌면 어제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지 몰라. 기대를 안고 걸었지만 안개의 층은 전날보다 더 두터웠다. 날씨에 민감한 날짐승만 낮게 날며 가끔씩 울어댔다.

새벽 산사는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 세상이 아닌 듯 바다 안개에 갇혀 있었다. 나는 차 한 잔을 받쳐 들고 범종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어슬렁어슬렁 석탑 돌레를 돌고 있는 두꺼비와 다시 마주쳤다. 저 두꺼비는 왜 두 번씩이나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걸까. 생각이 두꺼비에 모아졌다.

우물두들한 누런 살갗은 욕망을 잠재우다 굳어버린 나의 몸통이. 툭 불거진 눈은 분노를 참다가 화석이 되어버린 내 눈이라 할까. 그렇다면 초연한 듯 걷는 걸음걸이는 슬픔과 외로움에 이끌리 난 나의 뒤태라 해도 좋으리. 축대 위에 납작 엎드려 아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 맞서 싸우다

지친 내 남루한 영혼인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했다. 나의 눈에 비친 그 두꺼비는 그냥 두꺼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부처님 같았다.

아프지 않은 삶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타이르며 천천히 기어가던 두꺼비. 그 작은 부처를 만나기 위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전민 • 교육자, 시인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경영학을 공부했다. 「수필과 비평」과 「에세이문학」으로 등단했고, 맥스문학회(현 동서문학)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에세이문학 편집위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북촌시사, 담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 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일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r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대한제국 공사관

글 • 강인철(작가)

백악관 동북쪽 약 1km 거리의 로건서클(Logan Circle)을 찾은 건 처음이다. 듣던 대로 160여 채의 빨간 벽돌집이 고즈넉한 그곳은 시간이 멈춘 동네였다. 미국 정부로부터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잃어버린 우리 근대사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그러니까 120여 년 전, 임차해 쓰던 건물을 고종 임금께서 하사한 거금 2만 5천 달러로 매입하고 '대한제국 공사관'의 면모를 새롭게 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빅토리안 양식 벽돌 건물은 연면적 약 164평으로 1층엔 접견실과 집무실 그리고 본국의 국왕께 망꺄례를 올리던 정당正堂까지 갖췄었다고 한다.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 공사관을 개설한 뜻은 한반도를 옥죄던 열강 구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를 전 세계로 넓히려는 고종 임금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청일전쟁(1894)의 승리로 성큼 다가선 일제는 을미사변(1895)까지 일으켰고 결국 러일전쟁(1904)을 통해 한반도의 패권을 거머쥔 다음, 식민지화 수순에 따라 을사늑약(1905)으로 외교권마저 빼앗으면서 동시에 대한제국 공사관의 관리권도 일본 공사관으로 넘겨졌고,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일제는 공사관을 단돈 10달러에 팔아 치웠다.

그리고 흐른 세월이 어느덧 한 세기, 지난 2003년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아 현지 교민회를 중심으로 '공사관 되찾기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10년간의 노력 끝에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마침내 매입을 완료시켰다. 구한말의 유산이었던 재미 공사관이 잃어버린 백 년의 상흔을 털고 옛 모습 그대로 우리 품에 다시 돌아왔다. 그곳은 이제 근대사의 애환이 서리서리 깃든 역사 공간으로서 '더 큰 꿈을 위한 창구가 되었다. 긴 시간 민족의 한숨과 눈물이 뱀 곳에서 이제는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곳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에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 적극 참여 봉사하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보스턴

미 동북부 코트머리 올드 시티 보스턴! 세계를 향해 기세등등했던 영국에서 성공회의 종교 박해를 못 이긴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 1630년 대서양을 건너 처음으로 밟은 땅 보스턴. 그래서 지명 또한 뉴잉글랜드라 불렀고 미대륙 개척 역사 중심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 이후의 역사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어 미국의 정신이 짙게 밴 'USA 역사 체험장'이기도 하다.

보스턴이 담고 있는 미국의 역사를 쉽게 돌아보기 위해서는 '프리덤 트레일'을 이용하면 조금도 어려울 게 없다. 식민지 시대의 초기 모습이나 보스턴 차차 사건과 미국의 독립선언 등 혁명기의 역사적 장소 16 곳을 아스팔트 길 위에 붉은색 선으로 잘 표시해 놓고 있어, 여유롭게 따라 걷기만 하면 헛갈릴 염려도 없다. 여유롭게 2~3시간 정도면 충분한 거리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패트릭 헨리가 1775년에 외쳤던 말이다. 독립선언서에 처음으로 서명한 존 헨콕이나 새뮤얼 애덤스의 묘비도 만나보고 벤자민 프랭클린 동상도 볼 수 있다. 보스턴은 많은 희생자의 죽음을 대가로 얻은 자유의 도시인 셈이다.

하지만 다운타운을 벗어난 시골은 전혀 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디언들의 터전이었다는 콩코드 마을은 <월드>으로 유명한 ‘H.D 소로’가 태어난 고향으로 아직도 소로의 자유로운 삶이 거기 깃들여 있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고향에 내려와 형과 함께 학교를 세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새와 꽃, 동물들과 친구하도록 가르쳤다. 오늘날의 ‘생태학습을 그때 이미 내다본 선견지명이었을까.

이후 그는 콩코드 마을 근처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 자급자족으로 숲과 동물을 벗하며 세상의 어떤 유희

에도 흔들림 없이 두 번의 겨울을 지냈다. 인간이 욕심만 버리면 누군가를 강제로 부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라는 주장만 한 것은 아니다. 자연과 인간과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대표작 <월드>을 세상에 남겼다. 보스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다.

국경

오늘은 보스턴을 떠나 퀘벡까지 가는 먼 길이다. 땀 뚫린 도로처럼 출입국 절차 역시 잠깐 멈췄을 뿐 “헬로”와 “하이”를 주고받으며 “땡큐”와 “굿~바이”로 금방 통과다. 입출국 절차가 편해서 좋았다기보다는 ‘거참 신기하네...’ 그랬다. 국경이란 게 참 별스럽고 묘하다. 맞대고 있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갈 사람은 얼마든지 빨리 나가라는 것이고 들어올 사람은 철저히 따져 봐야겠다는 거다. 테러분자나 마약 총기 등을 검문검색 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냉혹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입장에서선 오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 놓은 모습이다. 혹여 미국 쪽에서 오고 있으니 저가 방 속에 달려(฿) 뭉치가 들어 있지 않을까 싶어 “웰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좌우간 고개가 기울어졌던 국경 통과다.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갈 땐 해발 5,400m 파미르고원 산정 국경선에 양국 국가 문양이 새겨진 경계석이 있었고 그 옆에 서로 다른 복장의 보안 경비원 1명씩이 있었을 뿐 별다른 검문객은 없었다. 오히려 우리들과 차를 나눠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기라도 하려는 듯 객담을 나눴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태국, 미얀마, 라

오스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그곳은 마침 메콩강의 물줄기가 알아서 멀찍이 거리를 떼어 놓고 있었다.

전에 유럽을 자전거로 달렸을 땐 국경이란 걸 실감해 본 적이 없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마을 한가운데로 국경이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그냥 이웃 주민으로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으며 독일 지나 폴란드로 바뀔 땐 허허벌판 길 양편에 양국 국기가 그려진 말뚝이 하나씩 있을 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형제끼리 가족과 생이별한 채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국경 아닌 국경이 이 지구상에 있으니 그게 우리나라다. 똥 문은 강아지가 겨 문은 강아지를 나무랄 수 없다면 국경을 논할 자격조차 없지만 하늘 우러러 참으로 부끄러운 분단 조국을 생각하면 그래도 한 마디 희망을 외쳐보고 싶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남북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5월 결연 대상자 - 김광현(가명)

세상에 홀로된 아픔을 대물림하긴 싫었어요.

천륜을 어기고 부모의 폭행 등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소식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의 정이 메마르고 물질적 가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각박한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몸으로 홀로 곳곳하게 자녀를 길러온 아버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광현(가명) 씨는 자신의 출생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 은평구의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그 지역 인근에서 출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보육원의 생활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부모를 그리워할 틈도 없

이 배를 굶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보육원을 퇴소한 후 구두담이를 하다가 기술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금형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풍돈을 주고 단순 노동을 시킬 뿐 기술을 익힐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의 생산 주문량이 증가해 미숙한 기술로나마 기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과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부족과 누적된 피로로 기계에 왼손이 들어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20살의 어린 나이에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어 사고로 받은 보상금으

로 비디오 대여점을 열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함 성격에 손님이 끊이지 않아 사업이 잘되면서 34살의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비디오 대여점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비디오 대여점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끝내 비디오 대여점은 폐업했습니다. 낮에는 고철을 줍고 밤에는 버룩시장에서 물품을 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빚만 늘어나고 결국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홀로 버텨온 김광현 씨에게 희망을...

대상자는 약 50만원의 기초 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만 소득이 작아 아버지를 보살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계비 부족으로 생긴 빚(약 1,200만원)이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고 각종 공과금에 수급비를 사용하고 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홀로 힘들게 버텨온 김광현 씨가 끝까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1년간 월 20만원(식비와 의류비)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키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잔소리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얼마 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감대화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화와 잔소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화는 서로 말하는 것이고, 잔소리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대화와 잔소리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엄마'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글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2개의 질문을 합치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엄마이고, 엄마의 말은 주로 잔소리인 것입니다. 잔소리를 반복하는 엄

마들은, 혹은 보호자들은, 혹은 어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나아지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그렇게 말하는 방법 밖에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법 밖에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악화시키는 잔소리를 입에 달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야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주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남 탓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배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출산율 저하와 행복지수 최하위와 자살률 9년째 1위 등의 통계수치(2015년 기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은 유지 및 지속해야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말하는 방법을 바꾸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면서, 말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지구 위 인간의 숫자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게 되지 않으며,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하는 방법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소통하고 있는 자신

을 만날 것입니다.

중학생의 아빠가 되어 아래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적어보십시오.

[중학생 자녀가 연속해서 2회의 시험의 성적이 올랐다. 오른 성적표를 보여주는 자녀에게]

아빠의 말
상황 : 아빠가 연속해서 2회 오른 성적표를 보니

느낌 : _____
바람 : _____
부탁 : _____?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2회의 성적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 타인의 도움으로... 등등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이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질문으로 자녀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빠가 연속해서 2회 오른 성적표를 보니 기쁘네. 네가 지난 학기 내내 열심히 한 만큼의 성적을 얻기를 바랐거든. 계속 열심히 노력해볼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보다 공부와는 멀어진 모습을 보았다면, '아빠가 연속해서 2회 오른 성적표를 보니 걱정되네.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기를 바랐는데, 노력 없이 얻은 결과에 네가 자만하게 될까봐서야...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해볼래?'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상황은 자녀의 노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빠가 연속해서 2회 오른 성적표를 보니 의아하네. 네가 노력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 너는 이번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솔직히 말해줄 수 있겠니?

위와 같이 상황-느낌-바람-부탁의 방법으로 공감대화를 연습한다면 '잔소리 대마왕'이라는 말을 듣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감대화를 연습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지라도 일단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만 두고 나서 다시 마음 다잡고 또 시작하면 되니까요. 새 봄에 '공감대화'를 새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초여름, 그 자체가 풍성한 밥상

글 • 권오분

초여름은 뜨겁지만 풍성하고 싱그러웠다. 어느새 5월의 여림과 6월의 상큼함이 지니고 있는 풋풋함이 느껴진다. 4월 말부터 5월 초순에 가까운 산을 바라보면 연한 연둛빛부터 진 초록까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초록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해마다 봄이면 보고 느낄 수 있는 초록의 연회장이자. 녹색이 그토록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이라.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색의 다양함은 꽃들이 피었을 때의 '울긋불긋'이나 '알록달록'을 뜻한다. 한 가지 색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을 이맘때 자연은 우리에게 선물한다. 그리고 꽃이 질 때 나타나는 '초록 잔

치'로 우리의 눈과 코와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 색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산에 있는 활엽수인 경우가 많다. 나는 그 다양한 초록의 세계를 보면서 봄을 보내고 그 색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다음해의 봄을 기다리곤 한다.

골목의 기다랗고 좁은 땅에 벽돌을 두 단 쌓아서 꽃밭을 만든 것은 꽃을 심기 위해서였는데 아픈 언니를 위해 암에 좋다는 모종들을 구해 심었더니 그럴듯한 텃밭이 되었다. 비닐 포트에 담긴 어린싹들을 땅에 옮겨 심으며 이 작은 싹들이 자라서 언니가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언니의 병이 위중하기도 했지만 어리고 어린 싹들이 너무나 약해

보여서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너린 잎들이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자라고 있다. 비가 한 차례씩 내릴 때마다 쑥쑥 자라올라 처음에는 언니에게만 녹즙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식구들이 열심히 쌈을 싸 먹어도 자라는 속도를 따르지 못할 정도다. 밭을 들여다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골목의 아줌마들에게도 나누어 주는데, 그 어린 생명이 참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던 생각이 들었다.

케일, 겨자무, 신선초, 컴프리, 쑥갓, 녹색 상추와 붉은 상추, 꽃상추, 민들레 잎을 닮은 상추, 왕고들빼기, 민들레, 모란꽃처럼 생긴 비타민... 아마도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 발이 꽤 클 거라는 상상을 할 것이다. 폭도 없이 길지만 있는 지렁이처럼 생긴 기다란 밭에서 자라는 먹을거리들이 너무나 대견스러웠다. 몇 잎만 따도 골고루 뜯으면 바구니로 하

나 가득이다. 보리쌀을 섞어 지은 밥만 있으면 된장과 고추장을 곁들여서 아무 때고 손님 접대가 가능한 것이 신기하다. 고추가 열리기는 아직 이르니 풋고추 천원어치만 사서 곁들이면 소문난 전문 쌈밥집 못지않다. 날것에 쌈을 싸서 먹는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기에 외국인을 초대했을 때도 훌륭한 문화 사절 노릇을 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몇 이파리씩 따가며 흠족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하다. 작은 것을 나누어 주고 큰 행복을 누리니 어찌면 나는 주는 자가 아닌 받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가만히 채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어린 생명들이 색채의 마술사처럼 느껴진다. 비타민은 검은빛이 돌 정도로 짙은 녹색이고, 케일은 초록에 분을 바른 것 같이 뽕얇고, 겨자무 잎은 경쾌하게 밝은 초록이고

쑥갓은 탁한 녹색이다. 신선초는 윤기 나게 투명한 느낌의 초록이어서 맛깔스러워 보인다. 상추들은 모두 반들반들 빛나고 연해 보여서 만지기만 해도 망가질 것 같아 쌈을 싸기가 조심스럽다. 컴프리는 두툼한 느낌에 솜털이 보송보송해서 밭의 대장 같다.

같은 종이라도 새잎이 나올 때의 색깔과 먼저 나온 이파리의 색이 또 다르다. 그렇게 하나의 초록에서 여러 녹색의 종류를 보면서부터 나의 작은 밭은 다른 세상 같다. 그 어우러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쌈을 먹으려고 뜯다가도 황홀하게 그것들을

바라보느라 식사 준비를 깜빡할 때도 있다.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이 커다란 즐거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온 천지에 가득한 빛깔들의 향연. 먼 산에 있는 나무들이 보여 주던 것과는 또 다른, 가까이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초록의 세상. 언니를 위하여 만든 작은 밭이 커다란 숲이 주는 것 못지않은 감동을 준다. 이 감동을 혼자서 누리기에 너무도 아깝고 소중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려고 어제도 오늘도 푸성귀 잎들을 따며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다.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 <공제> 등이 있다.

살구꽃

글 • 현덕(소설가)

마당 한가운데 늙은 살구나무 한 주가 섰다. 대어섯 평 남짓한 착박한 터전에 한 채를 잡고 있어 거추장스럽지 않은 바 아니나, 운치로 여겨 그 대로 둔다. 우리가 이 집에 들기 이전에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을 터인데, 이제껏 남아 있을 때엔 아마 운치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나 다름이 없나 보다.

일전에도 모처럼 한 벚이 나무를 찾아왔다가, 이 늙은 살구나무 아래에서 위로 거둬 훑어보며 감탄해 주었다. 먼저 벚은 마당 한가운데 살구나무가 선 것을 매우 신기해하고 그리고 이 나무에도 꽃이 피느냐고 물었다. 제때가 되면 어느 살구나무나 다름없이 꽃이 핀다고 하니, 벚은

그럼 열매도 여느냐고 한다. 물론 꽃이 피었으면 열매가 여는 것이 당연한 질서로 우리 살구나무도 그 질서에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자, 벚은 허허 하고 적잖이 감탄하는 것이다. 마치 꽃은 피되 열매는 열지 않는다는 이理에 어그러진 대답을 기대하거나 한 듯싶은 얼굴이었다.

하긴 내 집 꼬락서니란 벚이 마당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살구나무를 크게 감탄해 주는 외엔 다른 것이 없는 초라한 것으로, 나도 벚의 그 속을 알아차리고 얼른 그의 호장한 얼굴에 같이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일종 당연한 그 일에 당연 이상의 일인 듯 자랑했다. 그리고 어느 때고 이 나무에 꽃 피거든 꼭 한번

와서 봐 달라고 담배 한 개 대접한 것 없이 돌려보내는 섭섭한 정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벚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살구나무의 꽃이 필 날을 고대하던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마당에서 고개를 들어 살구나무를 쳐다보시며, 벌써 봉오리가 영글어졌다든 것으로 방 안의 나를 불러내셨다. 판엔 거의 파 알맹이만큼이나 영글었다. 아직 바람이 쌀쌀해 목 뒤가 서늘한 한테서 모르는 동안에 이만큼 영근 사실에 놀랍기도 하려니와, 보다는 꽃봉오리가 이만큼이나 자라도록 한 마당 안에 두고 무시로 대하면서 전연 몰랐다는 것이 무릇 자연 그것에 그만큼 소홀했던 것만 같아 다시 보아졌다. 그리고 그 뉘우침으로 나는 매일 살구나무 아래 서서 가지가지 봉오리를 쳐다보게 되었고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얻은 감으로 그 봉오리가 완전히 열릴 날을 기다렸다.

나의 이 다심한 소망이 통해진 바 있어 우리 늙은 살구나무는 근처 어느 살구나무보다 오륙일이나 그만큼 일찍이 봉오리를 열어 주는 치경稚景(어린 경치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는 致景(치경)의 오기(誤記)일 가능성도 있다)을 보여 주었다. 오늘 아침 아직 내가 버릇인 늦잠에 잠겨 있을 때 영창 덧문을 요란한 소리로 열어젖히며 호통스러운 누이동생의 음성이 나를 단잠에서 깨워 놓았다.

“오빠, 살구꽃 피었수. 살구꽃 피었어.”

나는 그 누이동생의 반색을 하는 음성에 따라,

“뭐?”

하고 기급한 형세로 상체를 일으켜 앉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다만 살구꽃이 피었다는 사실 이상이 아닌 것을 깨닫자 이번엔 반대로 먼 데 것이 가까이 온 기쁨으로 천천히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

을 움직여 옷을 주워 입고 마루로 나가,

“어디 말이냐?”

하고 또 좀 새로운 미소로 누이동생의 얼굴에서 그가 가리키는 처마 끝 살구나무 가지로 눈을 옮겼다. 판엔 바람이 가리고 양지가 바른 쪽으로 여남은 송이 봉오리가 활짝 열렸다. 그러나 누이동생과 어깨를 나란히 그 꽃을 쳐다보는 나는 누이동생이 것처럼 생생한 기쁨으로 얼굴을 빛내는 그 반분의 감흥도 일지 않는다.

그 반분의 것도 말하면 누이동생의 얼굴에서 받는 그것으로, 살구꽃 그것에서는 단지 하나의 기대를 잃은 실망을 느낄 따름이다. 젊은 여인의 미소는 앞으로 보는 때보다 뒤로 좀 떨어져 보는 때에 한층 빛나는 것으로, 뒤로 보고 감탄하던 사람을 앞으로 보고는 실망하는 수가 많은데, 아마 살구꽃도 봉오리를 보는 때만 같지 못한 것이 그가 가진 특색인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 보기 좋냐?”

“그럼 좋지 않고.”

누이동생은 여전히 같은 얼굴로 도리어 내 씩씩한 표정을 의아해하는 것이다. 그럼 누이가 감정을 과장하는 것인가, 내가 살구꽃을 살구꽃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감성이 소박하지 못함인가. 혹은 많이 얻으려거든 많이 기대치 말라는 말이 옳아 나는 너무 기대감이 컸던 까닭으로 이렇고 누이는 그것이 적었던 까닭으로 저런가 싶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그 흑백을 가리기 위하여 어머니를 불러내어 그 꽃을 보시게 했다. 그러나 꽃을 쳐다보는 여인의 마음이나 얼굴은 같은 것인가 싶어 누이동생과 똑같은 표정으로,

“그 꽃 좋다.”

하지만 나 홀로 그 꽃이 좋은 줄을 모르겠으니 병은 내게 있음이 분명하고, 동시에 꽃에서 느낀 그것으로 말미암아 봉오리에게 가졌던 기대조

차 잃고 말아 봄 전체에 대한 흥미를 잃은 듯 쓸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때 전일前日 이 늙은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날 나를 찾아주기를 기약하고 간 벚이 방문해 주었으면, 그러면 이 살구꽃을 보는 마음이 동

감司感이라면 적이 위안이 되련만. 그러나 내 집 끝이 마당 가운데 넓은 살구나무만이 돋보이지 않을 만큼 운택되지 못할진대 벗은 덮어놓고 좋다고 감탄해 줄 것이니, 그것도 믿을 수 없다.

〈문장〉, 1939년 5월

* 출처: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역음

현덕(1912~1945) · 소설가

본명은 현경윤(玄敬允). 서울 출생으로 인천 대부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중등학교 속성과를 마쳤다. 단편(남생이)로 1930년대 중후반 문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로 주목을 받았다. 아동 문학에도 족적을 남겼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 ♣ 관불의식 : 오전 9시 / 극락전 앞마당
- ♣ 봉축 법요식 : 오전 11시 / 극락전
- ♣ 길상 음악회 : 오후 7시 / 길상사 뜨락
- ♣ 맑고 향기롭게 - 문화 행사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길상사를 찾는 많은 불자와 내방객을 위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친환경 체험마당, 녹색나눔장터, 먹거리 장터, 맑고 향기롭게 홍보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문화 행사에 도움주실 회원, 봉사자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승

글 • 백석

여승女僧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1912~1996) • 시인

평안북도 정주(定州) 출생이며 오산 중학교 일본 도쿄 아오야마 학원을 졸업하였다. 1936년 시집(사슴)으로 문단에 데뷔하였으며, 토속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서정시들을 발표하였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부처님 오신 날 - '자비의 등'을 나누세요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2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이웃과의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후원해주신 동참금 전액은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반찬 나눔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입니다.
- ※ 계좌 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거나 중앙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 숲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1. 숲기행 일정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일자	장소	숲 특성
5/26	내소사 청련암	일제 강점기에 송진우, 김성수, 백관수 등 독립지사가 일제를 피해 머물렀던 암자
6/23	신흥사 금강굴	유네스코,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깊숙하고 높은 임벽 중간에 조성된 굴로 원효대사도 수행한 곳 7월은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
8/25	대전사 주왕암	중국 고대의 주왕이 신라로 피신 와서 머물렀다는 주왕굴과 아들이 주왕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지은 절 주왕암
9/22	변산 월명암	신라 신문왕 11년 부설거사가 창건하였고 계곡과 숲길의 아름다운 암자
10/27	속리산 암자순례	정조 11년 조성한 순조대왕 태실과 태실 원찰 범주사와 산내 암자들 그리고 숲을 지키고 가꾼 스님들의 이야기
10/12	승광사 불일암	법정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암자 탐방(봉사자 숲기행)

- ◆ 7월은 더위와 휴가철로 숲기행이 진행되지 않음
- ◆ 10월 12일은 봉사자 숲기행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만 참여 가능

2. 접수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3.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 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4.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신도증 소지자 등)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5.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사)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봉사활동 별 안내

1. 꽃·나무 심기(계절별)

- 1) 일시 : 추후 공시 2) 내용 : 길상사 경내 화단에 꽃·나무 심기

2. 꽃·나무 가꾸기(정기적)

- 1) 일시 : 매주 2회(요일은 사무국과 협의 가능)
- 2) 내용 : 정기적으로 화단에 물주기, 잡초 제거 등

○ 참여자격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복장 : 흙과 바닥을 가까이 하는 활동에 적합한 복장(운동화, 청바지, 밀짚 모자 등)

* 맑고 향기롭게 앞치마 제공

○ 기타 : 자원봉사활동 시간 VMS 입력

○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 사무국 02-741-4696



2018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인권’에 대해서

불교의 근본 사상은 지혜와 자비, 생명 존중과 평등일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민주적 인권선언인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인권'에 대해서, 일요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언제 : 3월 ~ 11월 넷째, 다섯째 일요일(사시예불 마치고)
- ◆ 어디서 :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5월 27일(넷째 일) 초청 강사

조혜옥 / 인권교육활동가

- 평화인권교육센터 교육활동가
- 인권교육공동체 '침' 운영위원
- 국제아동인권센터 강사
- (전)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원

2018년 인권 강의 일정		
강연 일자	초청 강사	강연 주제
5월 27일	조혜옥	아동&청소년 인권 2
6월 24일	서미화	자원 활동과 인권
7월 22일	고현희	장애 인권
7월 29일	유일영	여성 인권 (성 평등)
8월 26일	송재영	인권과 평화
10월 28일	김숙희	노동 인권
11월 25일	모천석	가정 인권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4월 13일(금. 오후 2시)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길상화보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은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25년째)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다라니 다원에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1994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발족하면서 올해로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장학 사업은 2000년부터故길상화 보살님(1999년 작고)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학교 성적보다는 남보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중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회원, 맑고 향기롭게 지역모임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학생의 성품, 가정 형편, 외부 지원 성적 등을 최종 검토하여 총 35명의 학생을 선정하였고, 장학금은 1년간(분기별로 학교 장학금 계좌로 입금) 지원하게 됩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장학 사업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644명의 장학생에게 9억 5천여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2018년 35명을 포함하여 총 679명의 학생들에게 총 10억여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들과 스님과 의 대화와 더불어 가수 박창근과 함께 Talk Concert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학생들의 진

로에 대한 고민과 여러 질문에 덕일 스님(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길상사 주지, 길상사 총무 남전 스님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답변을 해주었고, 박창근의 기타 연주와 하모니카 연주가 어울려진 노래로 화기애애한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선정된 장학생은 맑고 향기롭게 대구, 경남, 광주 모임에서 별도로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Talk Concert를 마친 후에는, 덕일 스님이 장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축하의 말과 더불어 장학증서와 법정 스님의 출가 전 편지를 엮은 책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를 선물로 전달하였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길상사 경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진인노인요양원 5월 12일 나눔행사 진행

본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는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팀이 시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흥겨운 자리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생활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나눔 행사를 가정의 달인 5월 12일(토)에 진행합니다. 평소 생활관에서 지루한 일상을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자의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



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시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에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 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

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0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9, 26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추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앞9시출발/목욕,식사도움,빨래장리,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9시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및 마음나누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

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시민서로배움터 '올제' : 연 중 다양한 시민강좌, 문화기행,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함께 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맑은산 캠페인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등산모임 / 비정기 매달 1회 진행

• 야생화 무료 나눔 행사 : 4월 한 달동안 대구모임 사옥에서 선착순 나눔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구모임에서 진행중인 각종 자원활동

* 매월초 소식지 우편 발송 작업

* 월중 수시로 사옥 관리 및 청소 도움 주실분

* 매주 수요일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 배달 자원활동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법정스님의 책임기 모임 '일기일회' 함께 해요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말씀과 책에서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4월 부터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사무국(남구 봉덕로9길 84-2)

○ 문의 : 053-753-8883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미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9회차기도가 4월 20일(금)에 입재되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지장재일

- 일시 : 5월 3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5월 5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 일시 : 5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불기 2562(201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

- 일시 : 5월 12일(토)
- 장소 : 동대문역 10번 출구 6시까지 집합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5/2 전에 종무소로 오셔서 조끼를 수령하시고, 당일 6시까지 '동대문역 10번 출구' 앞에 모이시면 됩니다. 제등행렬 후 조끼를 반납하시면 예쁜 길상사 손가방을 드립니다(등은 당일 현장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8시 00분 ~ 5월 13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5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오식

- 일시 : 5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관불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제19회 길상음악회 안내

- 일시 : 5월 22일(화) 오후 7시
- 장소 : 길상사 대극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 하안거 결제

- 5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저녁 예불 시간 변경 안내

- 4월부터는 저녁 예불 시간이 7시로 변경됩니다.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5월 3일(목)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5월 5일(토)	저녁 6시	극락전
관음재일	5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5월 12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5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 입재및 하안거 결제	5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불기2562년(2018)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못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중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당등(10만원)	도량 연등(3만원)
극락전 가족등	도량 가족등
극락전 영가등	도량 영가등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글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활용과 홍보(추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5월 22일(음력 4월 8일)

오늘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단순히 해마다 한 차례씩 있는 기념행사로 여기지 말고,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에 부처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라면
어떤 일보다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문제가
첫 번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환경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위기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 法 頂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
는 관육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봉축법회를 극락전에서 봉행합니다. 또한
경내에서는 연꽃 만들기 체험, 친환경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저녁 7시에는 길상음악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길상음악회는 평양민속예술단, 국악가수 권미희,
퓨전국악밴드 Whool(훅)이 아름다운 자리를 꾸며 줍니다. 오색 연등이 나무 사
이에 걸려 5월 하늘이 더 아름다운 길상사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
인지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